

유익함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교내 진로취업페스티벌 개최



지난 10월 10-11일 양일간 교내 곳곳에서 진로취업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취업지원팀이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10일 진행된 '진로DAY'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특강 위주로 꾸며졌다. 특히, 정인영 아나운서가 연사로 초청돼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결정 및 효과적인 의사 전달법'을 강연해 눈길을 끌었다. 또, 송대식 전 성북구위원을 초청해 '전공

특성을 고려한 진로 탐색'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11일 펼쳐진 '취업DAY'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종을 이해하고, 각자의 역량에 적합한 취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대학생 역량개발 특강'과 '졸업생 직무 멘토링' 등이 진행됐다.

'대학생 역량개발 특강'은 학생들에게 대외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강에서 만난 박금정(전자 3) 학생은 "평소

대외활동을 하고 싶어도 아는 바가 없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이번 강연에서 관련 정보를 습득해 앞으로 다양한 대외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보고 싶다"고 청강 소감을 전했다.

행사 담당자인 이선용(취업지원팀) 팀원은 "특강을 기획할 당시, 진로 개발 및 취업 준비에 접근하는 여러 방식을 안내하기 위해 직종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수요를 특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특강에서 전하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다양한 경험이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졸업생 직무 멘토링'에는 한재원(네이버 서비스기획팀), 이재은(소피몰 MD) 졸업생 등이 멘토로 나섰다. 이외에도 '더빙크리에이터', '공군통역장교' 등 다양한 직종에 진출한 졸업생들이 우리학교를 찾아 재학생들의 직업 탐색을 도왔다.

한편, 총학생회 '잡'(이하 총학생회)은 학생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총학생회는 우촌관 앞과 상상마당에 플라마켓을 설치해, 전시와 판매로 나눠 부스를 운영했다. 또, 상상마당에서 'OX 퀴즈'와 '추억의 트램펄린' 등을 진행했다. 그 밖에도, 음악 동아리 '4호선마이크'와 '들불' 등이 우촌관 앞에 설치된 버스킹존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정명아 기자

mhbtd0330@naver.com

지면안내

보도

상상빌리지 12월로 완공 지연... 우촌관은 예정일 지나 10월 완공돼

02



사회

양심과 군화, 누가 이 둘을 저울에 올렸나

03

문화

더 이상 당황하지 말아요. 크래프트 맥주 내가 알려줄게요!

04

사람사

시조라는 두레박으로 우물 안 깊은 내면을 건다

05



학술

인도vs중국vs한국의 '원조' 쟁탈전

06

오피니언

삼학송 · 한성포토저널 · #낙산세컷 · 의화정 · 기자수첩 · 낙산에 올라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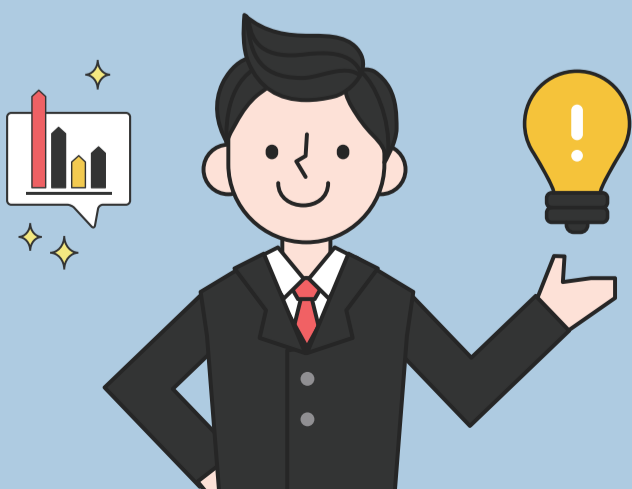
광고

제33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08

제12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표현하라"



지정주제

◆ 주제(택1)

1. 1인 미디어의 시대이다. 전통적인 미디어의 위기와 함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미디어 소비의 경향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이러한 1인 미디어의 폭발적 증가 요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와 영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시오.
2. 메가트렌드란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조하며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현상이 단순히 한 영역의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한 공동체의 사회·경제·문화적인 거시적인 변모를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①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메가트렌드를 제시하고 미래를 위해 ②자신은 전공 학문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는 할 것인지) 제시해 보시오.
3. 최근 병역특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병역특례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시오.

※ 자세한 내용은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대회일정

접수 | 10월 22일(월)~11월 9일(금, 18:00까지)
예선 | 11월 15일(목) 오후 4시~
본선 | 11월 22일(목) 오후 4시~ 미래관 DLC

접수방법

1. 글쓰기 센터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writing@hansung.ac.kr으로 이메일 신청
2. 팀으로 신청 가능(인원수 제한 없으며 발표자 2인 이상도 가능)
3. 선착순 35팀으로 접수 제한
※ 대회 참가 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칠 경우 출석 협조문 발급 가능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 상금 80만 원 비교과 포인트 100점
우수상 2명 상금 각 30만 원 비교과 포인트 80점
장려상 3명 상금 각 10만 원 비교과 포인트 60점
※ 예선 참여 비교과 포인트 40점/ 단순 방청 5점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 및 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빌리지 12월로 완공 지연... 우촌관은 예정일 지나 10월 완공돼

▲10월 11일,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상상빌리지(좌)와 우촌관 복측면 외벽(우)

신규 기숙사인 상상빌리지와 우촌관 복측면 외벽(이하 우촌관) 완공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당초 상상빌리지와 우촌관은 각각 지난 8월과 9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상상빌리지는 12월로 완공 예정일을 미룬 상태이며, 우촌관은 완공 예정일을 훌쩍 넘긴 10월 18일에야 완공됐다. 완공이 제차 지연되자 학생들은 소음, 통행, 안전 등과 관련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학본부는 시공사와의 마찰, 주민 민원 등 일정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상상빌리지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 특히,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공학관을 이용하는 공과대학 학생들은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통행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신현진(IT 1) 학생은 “공사 소음으로 수업이 중단돼 흐름이

끊겼다. 공사 차량이 공학관으로 진입하는 통로를 막아 다른 길로 돌아서 가야 했던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학기 상상빌리지 입주를 기대했던 학생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전유미(인문 1) 학생은 “상상빌리지는 여자 기숙사인 우촌관보다 시설 측면에서도 입지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어 이번 학기에 입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완공 일정이 지연된 것에 실망감을 느낀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에 대학본부는 시공사 선정에 차질이 생겨 일정 연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정도영(시설지원팀) 차장은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3회의 유찰, 수의계약 협의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해 상상빌리지 완공이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2017년 8월에서야 시공사가 확정됐고, 같은 해 9월에 착공했다”고 설명

했다. 작년 6월 22일에 착공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이 시공사 변경으로 두 달가량 미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상상빌리지 완공 예정일은 올해 12월로 연기됐으며, 완공 이후 약 2개월에 걸쳐 가구 배치 등 개관 준비를 마친 다음 내년 2월 말에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우촌관 완공 지연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김영민(사회과학 2) 학생은 “우촌관 중문을 지나 등교하는 경우 강의실에 가기 위해서는 우촌관 옆 계단을 이용해야 통행이 편리하다. 그런데 개강 이후 한 달 이상 계단을 통해 통행에 불편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박수병(사회과학 2) 학생은 “우촌관 중문 쪽 인도를 막아놓아 우촌관 주차장을 가로질러가는 학생이 많았다. 이로 인한 차량 사고 위험도 있었다. 그리고 중문을 지나갈 때 공중에서 불똥이 떨어져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며

“공사가 길어진 정확한 이유를 학교가 공식적으로 발표해 학생들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종석(시설지원팀) 팀원은 우촌관 완공 지연에 대해 “공사현장이 주택가와 매우 인접해 소음 관련 민원이 잦았다”며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진행하던 자체 가공 및 설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외부 가공장을 별도로 임대해, 그곳에서 작업해 운반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대규모 작업장을 수배하고, 조립체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또, 고도작업의 특성상 8월 중순에서 9월 초까지 이어진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몇 차례 작업이 중단됐던 것도 완공 지연 원인 중 하나다. 박 팀원은 “오랜 기간 동안 통행에 불편을 드려 학생 및 학내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혔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한성 #타임라인

‘총장과의 점심식사’ 진행

지난 10월 11일, 학생장학팀 주최로 상상관 12층 밀가옥에서 ‘총장과의 점심식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한 총장과 최진근 학생처장, 사전에 참가 신청한 학생 9명이 참석했다.

박대민(학생장학팀) 팀원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느끼는 애로사항을 총장에게 직접 건의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여 줬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수연(애니 3) 학생은 “총장님과 대면하는 것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이었다. 무엇보다 건의사항을 총장님께 직접 말할 수 있어 유익한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대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학생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학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1월 1일과 9일에도 동일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교 재학생 누구나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명만 선발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10pt를 지급한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제17회 지식재산능력시험 응시자 모집

본교 지식재산교육센터가 오는 11월 8일까지 제17회 지식재산능력시험 응시생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 시험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능력을 평가한다.

지식재산교육센터를 통해 시험에 접수하는 학생에게는 응시료 전액 지원, 무료 온라인 강의 수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후 시험 성적을 지식재산교육센터에 제출하는 학생에게는 시험 등급에 따라 비교과 포인트를 차등 지급한다.

강수경(지식재산교육센터) 연구원은 “앞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시험 성적은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관련 업종에 진출할 때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응시를 독려했다.

한편, 지식재산교육센터는 제17회 지식재산능력시험에 대비해 온라인 이론 및 문제풀이 특강 일정을 10월 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주민들을 하나로 이은 제8회 삼선동 선녀축제



▲지난 10월 14일, 삼선동 분수광장에서 열린 제8회 삼선동 선녀축제

지난 10월 14일, 성북구 삼선동 한양도성과 삼선교 분수마루 일대에서 제8회 삼선동 선녀축제가 열렸다. 예로부터 삼선동에는 세 신선이 세 선녀의 미모에 반해 속세에 내려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본 축제는 이러한 삼선(三選)동의 유래를 본떠 기획됐다.

축제는 ▲식전행사 ▲선녀축제 기념행사 ▲주민화합마당 프로그램 경연대회 순으로 치러졌다.

식전행사는 한양도성에서 출발해 삼선교 분수마루까지 이어지는 ‘선녀맞이 환영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또한, 본교 홍보대사 ‘하랑’과 관현악 동아리 ‘MGOP’가 각각 선녀 하강식과 식전 축하공연에 참여했다.

‘선녀축제 기념행사’는 퍼레이드를 마치고 돌아온 선녀들을 환영하는 ‘선녀맞이 환영 춤, 내·외빈

소개 및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병호 삼선동 선녀축제 추진위원장, 이상한 본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가수 심신과 모창가수 나운하가 ‘주민화합마당 프로그램 경연대회’ 축하무대를 꾸몄고, 예선을 통과한 주민 7명이 노래 실력을 뽐냈다. 이와 더불어 한국무용·가락장구 등 성북구 내 자치회관 프로그램 간 경연이 치러졌다. 본교 힙합 동아리 ‘트라이엑스’와 버스킹 동아리 ‘4호선마이크’도 찬조 공연을 선보였다.

본 행사에 ‘선녀로 참여한 입서진(패션 2) 하랑 16기 팀장은 “선녀 축제는 매년 개최되는 삼선동만의 특별한 행사다. 지역주민들끼리 화합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성북구 다문화 멘토링 해단식 가져



▲지난 10월 13일,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성북구 다문화가족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해단식 및 성과 세미나’ 모습

지난 10월 13일,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성북구 다문화가족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해단식 및 성과 세미나’가 열렸다. ‘성북구 다문화가족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이하 다문화 멘토링)’은 본교 국제교류원과 성북구청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다문화 가족이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자리는 다문화 멘토링 활동 종료 기념과 활동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본교 학생 및 교수를 비롯해 국제교류원 직원 및 강사, 성북구 다문화가족 구성원, 경문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를 시작으로 ▲다문화 프로그램 및 개선 방안 ▲멘토링 활동 사례 및 성과 발표 ▲경문고등학교 다문화 교육 사례 발표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본교 학생 대표로 멘토링 활동

사례를 발표한 유혜민(행정 4) 학생은 “다문화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었다. 멘티와 끈끈한 관계가 형성돼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소감을 밝혔다.

멘티로 참여한 이예원(미아초 6) 학생은 “다문화 멘토링은 2012년부터 계속 참여해왔다. 그동안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중학교에 입학해 멘토링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쉽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승현 국제교류원장은 “다문화 멘토링은 다문화 가족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하고, 우리 학생들이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프로그램은 종료됐으나 내년에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학술정보관과 함께하는 책임기 프로젝트’ 열려

학술정보관이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저자 강연’, ‘상상독서 문학기행단’ 등 행사를 한데 묶어 새롭게 기획했다. 바로 ‘학술정보관과 함께하는 책임기 프로젝트(이하 책임기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는 ▲더불어 읽기 ▲더불어 공감 ▲더불어 토론 ▲더불어 체험 등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다만, ‘더불어 읽기’와 ‘더불어 체험’은 이미 종료됐으므로, 앞으로는 ‘더불어 공감’과 ‘더불어 토론’에만 참여할 수 있다(10월 22일 기준).

‘더불어 공감’에서는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생과 교수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11월 6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연자로는 서민(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더불어 토론’에는 ‘비경쟁 독서토론 방법’을 주제로 한 강연과, 이를 실제 토론에 적용해보는 실습이 준비됐다. 강연은 10월 30일 미래관 DLC에서, 실습은 11월 13일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다. 두 프로그램 모두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상상독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조용훈(학술정보팀) 팀원은 “평소 책임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책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행사 취지에 대해 밝혔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신문사(4186)로 문의 바랍니다.

양심과 군화, 누가 이 둘을 저울에 올렸나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대한민국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명시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이는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켰고, 이로써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징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논란은 2001년, 불교신자 오대양 씨의 병역 거부 선언으로부터 시작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도 이때 생겼다. 국내 최초로 병역의무자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많은 이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을 이어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헌재가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양심의 자유’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정부에 대체 복무 도입을 권고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2009년 초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이는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올해 6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법원이 청구한 ‘헌법소원·위헌 법률 심판’에서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별도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병역 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개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제 제정을 권고함으로써, 길고 긴 ‘양심적 병역 거부’ 찬반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오랜 논란 끝에 국가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고, 대체 복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병역 거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부분은 ‘형평성’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법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병역법」 제3조에 따라 신체가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육·해·공군에서 각각 정해진 일자만큼 군복무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이들은 ‘단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영길(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우리나라 병역 거부자 중 99.4%가 특정 종교 출신이다. 따라서 이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아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다. 이들의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혜택이고, 이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며 “징총 거부는 인정할 수 있으나,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 병력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지하는 이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존재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헌법」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개인의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이 특정 종교에 대한 혜택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식(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전부는 아니다. 다양한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존재하므로 이들이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든 없든 모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체 복무에 대한 사안은 2020년 내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 5조에 대체 복무를 명시할 것을 판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4일,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이 공청회를 열어 대체 복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중 복무 기간으로는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안과 2배인 ‘36개월’안이 제시됐으며, 복무지는 합숙 근무가 가능한 소방서나 교도소로 의견이 좁혀졌다.

공청회에서 다양한 안이 개진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7개월’안 지지자는 ‘현역병의 두 배에 달하는 복무 기간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36개월’안 지지자는 ‘개인의 양심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복무 기간을 늘려 병역기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길 대표는 “현재 의무소방원 근무 경쟁률은 10대 1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대체 복무 근무지에 소방서를 포함하는 것은 특혜다. 기존 병역 내에서 집중 없이 복무하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복무 기간 역시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김식 공동대표는 “대체 복무 기간은 현역과 같은 18개월로도 충분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병역기피자’로 판단하고, 대체 복무를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나 ‘징벌’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체복무자의 근무지는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국가의 공공이익을 위한 곳 어디든 상관없다고 본다. 다만, 그에 앞서 대체 복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용어 사용에 대한 지적도 있다. ‘병역 거부자가 양심적이라면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양심이 없다는 것이냐’, ‘병역 거부자를 양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들을 변호하는 것’ 등의 내용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우리 학교 조문석(행정학과) 교수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거부감이 용어 사용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판단뿐만 아니라 도덕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용어에 대한 논쟁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더 커지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

지난 10월 4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를 개편해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는 서울시가 건축 규제 완화와 건설자금 지원 등의 편익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개편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청년주거난’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2015년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10명 중 4명이 옥탑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시 차원에서 ‘청년주택’을 보급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개편안에는 ▲역세권 범위 확대 ▲사업 대상지 면적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주택 공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역세권의 범위가 기존 ‘지하철역 기준 반경 250m’에서 ‘지하철역 기준 반경 350m’로 넓어진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3km² 남짓한 토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3만 호가량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재준(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주무관은 “역세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추가 개발을 원하는 민간 사업자와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주택 건축 지역 주민들이

집값 폭락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추진 과정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0월 1일, 강동구 주민들은 서울상운차량공업 부지 앞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반면에 일부 시민단체는 이 같은 주민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한솔(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사업 대상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값 폭락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이번 정책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국민신문고에 “청년주택 시세가 높아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해 주거난을 더욱 심화할 것이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이에 유 주무관은 “서울시에서 청년주택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거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히려 청년들이 입주하기 쉽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 사업이 마냥 고운 시선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연 서울시가 이런 ‘곱지 않은’ 시선들을 극복하고 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성공적으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 향방이 주목된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이슈 브런치 가사가 요리하는

동물원에는 제2의 ‘호롱이’가 남아 있다

지난 9월 18일, 대전광역시에서 퓨마 ‘호롱이’가 사살됐다. 호롱이는 같은 날 17시 10분경 대전시 소재 동물원에서 사육사의 부주의로 사육장 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탈출했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대전시 당국은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보문산 일대를 수색하던 중 21시 44분경 동물원 배수로에 웅크리고 있던 호롱이를 발견해 사살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일각에서는 대전시의 대응이 과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맹수로서 퓨마의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살은 지나친 처사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영균(대전도시공사) 사장은 “퓨마 탈출에 대해 보고를 받은 직후, 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호롱이가 마취 총에 맞은 후에도 계속 도망가 사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내에서 처음 논란이 되었던 비슷한 사건으로는 호랑이 ‘크레인’ 퇴출 사건이 있다. 2001년,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크레인’은 선천적으로 안면 기형을 갖고 있어 전시 동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고, 그러한 이유로 ‘크레인’은 열악한 환경의 다른 동물원으로 옮겨졌다. 온전한 ‘생명’이 아닌 단순한 ‘전시물’로서 동물의 가치가 매겨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병진(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활동가는 “국내 대다수 동물원은 단순히 동물을 전시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동물원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박제하는 곳이다. 동물들이 야생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동물복지 실태 개선을 주장했다.

위 사건을 계기로 일부 동물시민단체는 동물원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노력은 지난 2016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동물을 10종 혹은 50개체 이상 사육하는 동물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등록제’라는 점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다. ▲시설의 소재지 ▲전문 인력 현황 ▲보유 개체 수 ▲멸종위기 종 개체 수 등을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물을 10종 혹은 50개체 미만으로 운영하는 동물원은 등록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 법안을 두고 시민단체들 간 갈등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기존에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동물원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더 이상 당황하지 마세요.

크라프트 맥주 내가 알려줄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른바 '혼술'을 하러 맥줏집에 들어간 이 기자. 그는 종업원에게 건네받은 메뉴판을 보고 그만 당황하고 말았다. '맥주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하며 훑어본 메뉴판에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온갖 맥주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이 기자는 그중 가장 무난해 보이는 'IPA(India Pale Ale)'를 주문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보다 맥주 맛이 너무 써서 한 잔을 다 마시지 못하고 술집을 나왔다. 이 기자가 맛본 IPA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캔 맥주와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맥주+개성=크라프트 맥주!

이 기자가 맛본 IPA는 '크라프트 맥주'의 일종이다.

이에 대해 김진만(한국수제맥주협회) 과장은 "힙합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힘들 듯, 크라프트 맥주 역시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잊혀가던 맥주의 가치를 부활시키고자 한 맥주계의 '르네상스'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 생각하면 편하다"고 설명했다.

그가 크라프트 맥주를 '르네상스의 산물'이라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 과거에는 맥주를 소량 생산해 맥주 맛과 향이 다양했지만, 이후 맥주를 대기업에서 대량 생산하자 맛과 향이 획일화됐다. 미국의 양조협회는 이에 반대하며 다양성·도전정신·장인정신 등의 가치를 맥주에 담아내자는 의미에서 전통방식으로 소량 생산하는 맥주를 일컬어 '크라프트 맥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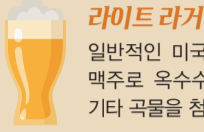
크라프트 맥주는 발효방식에 따라 라거(Lager) 맥주와 '에일(Ale) 맥주'로 구분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나 일반 생맥주는 라거 맥주에 속하는데 가볍고 청량한 맛을 특징으로 한다. 라거 맥주는 에일 맥주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낮은 편이고, 색깔도 밝은 편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크라프트 맥줏집에서 접하는 맥주는 대부분 에일 맥주다. 이는 묵직하면서 풍미가 깊으며 라거 맥주보다 더 짙은 향과 쓴맛을 낸다. 이쯤되면 과연 크라프트 맥주가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해진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이 기자는 곧장 크라프트 맥주 마시기에 도전했다.



- 흔히 접하는 기성 맥주와 비슷한 맛
- 알코올 도수가 낮은 편
- 맑은색
- 깔끔하고 시원한 청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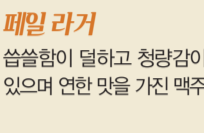
- 수제 맥줏집에서 주로 접하는 맥주
- 짙은 향과 쓴 맛이 특징
- 라거 맥주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고 색깔과 맛이 진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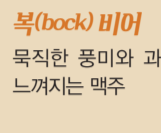
라이트 라거
일반적인 미국식 대기업 맥주로 옥수수, 쌀 등의 기타 곡물을 첨가한 맥주



필스너
쌔뜻한 홉 맛이 강한 라거 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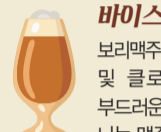
페일 라거
쓴맛이 덜하고 청량감이 있으며 연한 맛을 가진 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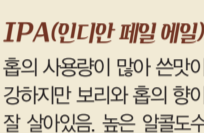
복(bock) 비어
묵직한 풍미와 과일맛이 느껴지는 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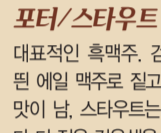
페일 에일
에일에서 가장 기본적인 맥주, 붉은색에 과일향이 나고, 묵직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맥주



바이스 비어(바이젠)
보리맥주보다 특유의 바나나 및 클로브 풍미가 나며 부드러운 맛과 풍부한 향이 나는 맥주



IPA(인디안 페일 에일)
홉의 사용량이 많아 쓴맛이 강하지만 보리와 홉의 향이 잘 살아있음. 높은 알코올도수를 가지고 있는 맥주



포터/스타우트
대표적인 흑맥주. 검은색을 띤 에일 맥주로 짙고 그윽한 맛이 남. 스타우트는 포터보다 더 짙은 검은색을 띄며 쓴 맛도 강한 것이 특징

온도+순사+취량=JMI!

기자는 맥줏집에 가기 전에 어떤 크라프트 맥주를 마실지 결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을 켰다. 기성맥주와는 다른 맛을 느끼길 원해서다. 필자는 라거 맥주 대신 에일 맥주의 한 종류를 마시기로 결심했고, 쓴 맛이 덜하고 비교적 달달하다는 '파운더스 포터'를 마시기로 했다.

맥주를 고르고 나니 맥주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궁급해졌다. 첫 번째로

고려한 것은 바로 맥주의 '온도'다. 진정한 맥주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맥주가 만들어진 환경과 동일한 온도로 맥주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한다.

김용민(크라프트브로스) 매니저는 "라거 맥주는 차갑게, 에일 맥주는 상온에서 라거 맥주보다 덜 차갑게 마시기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맥주를 무조건 시원하게 마셔야 한다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다. 특히, 맥주에 얼음을

넣어 마시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 얼음이 맥주 자체의 맛을 희석시키고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맥주를 더 맛있게 마시는 두 번째 팁은 맥주를 마시는 순서를 고려하는 것이다. 다양한 크라프트 맥주를 마셔보겠다고 이것저것 번갈아가며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여러 맥주를 동시에 마실 때는 도수가 낮고 맛이 가벼운 맥주부터 시작해서, 도수가 높고 맛이 묵직한 맥주로 마무리해야 나중에

마시는 맥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맥줏집에 가서 '샘플러'를 주문해보자. '샘플러'를 시키는 건 바보짓이야! 양이 적다고!라며 고개를 내젓는 이들도 있지만, 한번에 다양한 맥주를 조금씩 맛보려면 최선의 선택이다. 맥줏집 샘플러 메뉴를 주문하면 보통 4~5가지 종류의 맥주를 각각 200ml 정도 따라준다. 조심자라면 샘플러로 입을 촉촉하게 적신 후, 그중 맘에 드는 스타일의 맥주를 골라 천천히 마셔보길 권한다.

크라프트 맥주=행복∞

필자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근처에 위치한 크라프트 맥줏집 'CUBAR'를 방문했다. 그리고 앞서 정해둔 파운더스 포터를 주문했다. 이 맥주에서는 알코올 맛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고, 강한 초콜릿 향이 났다.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도 느낌은 꼭 달지 않은 다크 초콜릿을 먹고 있는 것만 같았다. 평소 맥주를 얼음과 같이 마셨을 때는 얼음이 녹으면서 맥주 맛이 얼어져서 싫었다. 얼음을 빼고 상온과 비슷한 온도로 맥주를 마셔보니 맥주 본연의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크라프트 맥주를 찾아보고 맛보는 과정은 생각보다 재밌는 일이었다.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맛보고 즐기는 동안 필자는 마치 소몰리가 된 것만 같았다. 이 기사를 읽는 내내, 입 안에 군침이 돌았는가? 맥주가 당기는가? 그런데 왜 당신은 아직도 기사를 읽고 있는가.

이기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삼선시장 골목에 위치한 맥줏집 'sub'



▲스타벅스 한성대입구역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있는 'CUBAR'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 주변에 자리잡은 맥줏집 'tap house F64'



푸른빛 변주곡 'The Blue: 청람'

우리는 현상 하나에 상반되게 반응하곤 한다. 물이 반쯤 찬 컵에서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듯 말이다. 마찬가지로 파란색을 보고 어떤 이는 차가움을, 다른 이는 시원함을 느끼기도 한다. 과연 예술가들은 푸른색을 보고 어떤 것을 연상할까? 푸른색에 대한 예술가들의 다양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성북구에서 열리고 있다. 성북구립미술관은 오는 11월 25일까지 'The Blue: 청람'을 무료로 전시한다. 이 전시회에서는 김성복·금누리 등 현대미술 작가 7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들은 각자 푸른색에서 차용한 청춘, 꿈 등 다양한 이미지를 작품에 담아냈다. 이 중에서도 '청춘'을 표현한 김성복 작가의 작품과 일상 속

푸른색 물건을 예술로 승화시킨 금누리 작가의 작품은 대학생 관람객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김성복 작가는 푸른색에서 '꿈'이라는 속성을 뽑아내 설치물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에 반영했다. 옛 선조들은 현재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청운(靑雲)'의 꿈을 안고 과거시험 공부에 매진했다. 이 점에 착안한 그는 꿈을 좇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형물로 묘사했다. 이 작품에서 '꿈'은 스테인리스 조각을 연결해 만든 도깨비 방망이(일명 '꿈방망이') 형태로 표현했다.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드리면 원하는 물건이 나타나는 전설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그 옆에 놓인 조형물인 '꿈방망이를 좇는 사람'은 '꽃처럼 아름다운 청춘'을 상징하고 있다.

금누리 작가는 <누리과랑.42??-4351>을 통해 생활용품도 예술 작품으로 승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우산, 티셔츠, 비닐봉투 등 푸른색 물건을 전시장 벽면에 붙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

또한, 금누리 작가의 <내.예술.한.잔.받.게>는 푸른 술잔 두 개와 푸른 소주병 하나만으로 구성돼, 언뜻 보면 예술 작품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유선 학예연구사는 "금누리 작가는 종종 전시장에 방문해 관객에게 소주 한 잔을 건네곤 한다. 그는 관객이 평소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듯 가벼운 마음으로 예술에 접근하길 바랐다. 이러한 자세로 작품을 감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다른 작가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푸른색을 변주했다. 정하경 작가는 <자연 1·2·3>에서 푸른 먹으로 산수화를 그려, 숲이 주는 시원한 느낌을 한층 고조시켰다. 이인현 작가는 <회화의 지층-재생>에서 번지기 기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푸른색을 선택했다. 한만영 작가의 <시간의 복제-푸른 첼로>, 유근택 작가의 <푸른방>, 안규철 작가의 <슬픈 영화를 보고 그린 그림>에서도 그들만의 푸른색 변주곡이



▲금누리 작가는 파란색 생활용품을 벽에 걸어 <누리.파랑.42??-4351>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생활용품도 예술로 승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펼쳐졌다. 이쯤에서 문득 궁금해진다. 만약 당신이라면 푸른색을 어떻게 변주할 것인가?

윤희승 기자

yooning@gmail.com



▲김성복 작가는 푸른색에서 꿈이라는 소재를 뽑아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에서 이를 꿈방망이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로 표현했다.

시조와는 두레박으로 우물 안 깊은 내면을 길다



시조 시인 서희정

‘冬至(동지)가 지나니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귀구귀 퍼리라’
위 구절은 학창시절 배운 시조 가운데 황진이 <동짓달 지나니 밤을>이다. 일반인이 읽기 어려운 고어에, 현대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정서까지. 오죽하면 고전문학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생겨날 정도다.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시조 대부분은 고려 또는 조선 시대에 지어진 것들이다.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라면 ‘옛날 시를 시조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라며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21세기에도 어딘가에서 시조를 쓰고 있는 이들이 있고, 이 중에는 우리학교

동문도 있다. 바로 서희정(무역 10) 시조 시인이다.
서 시인은 2017년 한라일보 신춘문에 시조 부문에서 <술>으로 등단했다. 당시 심사위원은 <술>에 대해 “가족과 사회가 해체된 시대, 그가 느낀 일상적인 생각과 정서를 담백하게 묘사해낸 작품”이라고 평했다. 삭막해진 세상 속에서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노래한 그는 어떻게 시조 시인의 길을 걷게 됐을까?

시조 입문, 그 멀고도 험난한 여정

서 시인은 대학을 졸업한 직후 2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가

문단(文壇)에 등단하기로 결심한 것도 이때다. 대학생 때부터 취미 삼아 자유시를 습작하곤 했던 그는 졸업 이후 자연스레 시인 등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그에게 족쇄로 작용했다. 국문학도가 문단을 짊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존경하는 시인의 문하생 대다수는 국문학 전공자였고, 시를 투고하려 출판사에 문의해도 직원은 다짜고짜 출신 학과부터 묻기 일쑤였다. 문단의 높은 문턱을 몸소 느낀 그는 등단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저리 방황하던 찰나, 서 시인은 고등학생 시절 고전문학을 공부할 때 느낀 시조의 매력을 어렵듯이 회상했다. 3·4조, 3장 6구 45자 내외, 종장 첫 음보 3음절로 대표되는 엄격한 형식과 문장 속에 적재적소 배치된 단어들, 그 속에서 느껴지는 절제미 등... 당시 그는 이러한 시조의 간결함에 반했다.

현실적 여건 또한 자유시에 비해 시조가 더욱 유리했다. 시조 문단은 40~50대 중년층이 주로 등단하는 터라 젊은 피가 부족했다. 20대인 서 시인이 도전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그는 시조 문단에 등단하기로 결심했다.

신춘문에 응모하려면 최소 작품 5편을 출품해야 한다. 습작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30편은 써야 겨우 응모할 수 있는 셈

이다. 고단할법한 등단 준비 과정은 오히려 서 시인에게 위안을 줬다. 취업 준비로 힘들었던 마음을 시조로 달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꾸준히 준비한 끝에 그는 2016년 중앙일보 주관 중앙시조백일장에서 장원을, 2017년 한라일보 신춘문예에서 등단의 영예를 안았다.

“저는 ‘깊은 우물’인 것 같아요”

서 시인은 그의 대표작 <술>처럼 가족을 소재로 한 시조를 자주 썼다. <신발의 역사>는 저녁 무렵 부모님이 퇴근한 후 신발로 가득 찬 현관을 배경으로 한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동생과 단둘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 텅 빈 현관을 바라보며 적막감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녁에 퇴근하시고 나면 현관이 신발로 가득 찼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서 시인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가족들은 끝까지 저를 믿고 묵묵히 응원해주었어요.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고백했다. 가족과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견뎌냈기에 그녀가 ‘가족에 더욱 애착을 품은 것은 아닐까’.

서 시인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깊은 우물’인 것 같아요. 깊은 우물은 두레박으로 길다 보면 끝없이 물이 나오잖아요. 그 우물이 딱 제 모습이거든요. 사실 저는 남들에게 보여준 것보다 아직 그러지 못한 모습이 더 많아요”

그는 미처 걸음으로 드러내지 못한 자신의 내면을 세상 밖으로 꺼내고자 ‘시조’를 하나의 ‘두레박’으로 삼은 모양이다.

서 시인은 내년에 첫 시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내년이면 등단 3년차가 되니 ‘시집을 낼 때도 됐다’는 생각에서다. 시조 문단에 혜성처럼 등장해 문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서희정 시인 앞으로 그가 시조로 길어낼 우물물 맛이 어떤지 궁금해진다.

윤희승 기자

yoohng@gmail.com



▲카페에서 습작하고 있는 서희정 시인. 그는 카페에서 자주 시를 쓴다고 이야기했다.

경제와 경매는 한 글자 차이, 스페셜리스트 정태희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진로와 장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저 성적에 맞춰 학과를 선택했다면 더욱 그렇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전공과 진로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기에 주목하자. 필자가 ‘정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는 제안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 경매회사 ‘서울옥션’에서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정태희(경제 05) 동문을 통해서 말이다.

‘스페셜리스트’라 하면 언뜻 떠올리기에 ‘특별한 사람’일 것만 같다. 명칭조차 생소한 이 직업은 쉽게 말해 ‘미술품 경매 전문가’를 의미한다.

정 씨는 미술품 경매를 “작품을 처음 구입한 1차 구매자가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2차 구매자에게 작품을 되파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의 주요 업무는 미술품 경매를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우선 그는 기획 의도에 적합한 경매 작품을 선별하고 해당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을 수소문한다.

그 다음, 그들이 작품을 경매에 내놓도록 설득한다. 물론, 작품 소장자가 정 씨를 찾아와 자신이 소장 중인 작품에 대해 의문·상담할 때도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정 씨가 미술품 판매권을 획득해내면, 판매할 작품의 도록(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엮은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도록에는 각 미술품과 작가에 대한 설명 등을 실어야 하므로 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할 때는 막연히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경제학과를 선택한 것도 뚜렷한 비전이나 특별한 애착이 있어서는 아니었고요.”

오래 남들처럼 상경계열에 진학한 정 씨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경제학이 과연 자신에게 맞는 전공인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좋을지 등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이런 고민은 군 복무 중에도 계속 됐다. 그러던 중 정 씨는 휴가 기간에 찾은 미술관에서 뜻밖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그때 감상한 미술품과 작품 하나하나에 녹아 있는 스토리가 저를 매료시켰어요.

작가들의 신선하고 다채로운 시각에 영감을 얻었고요. 세상을 보는 제3의 시각을 갖게 된 셈이죠.”

군 전역과 동시에 복학한 정 씨는 미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 갖기 시작했다. 먼저, 미술 관련 교양 강의를 골라 들었다.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회화와 전공 교과목인 ‘미술사’, ‘미술 이론’까지 수강했다. 그의 미술 사랑은 학교 밖에서도 이어졌다.

“시간을 쪼개서 미술관을 찾아 다녔어요. 나중에는 미술관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해 해설사로 일하기도 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미술 분야를 기웃거리던 그는 결국 진로를 미술 쪽으로 굳혔다. 전공과 관련이 없는 분야라 진로를 설계하려면 더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야 했다.

“경제학과 지도교수님 대신 회화와 정현이 교수님께 면담을 부탁드렸어요. 애초에 답답한 말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받은 충고와 조언은 꿈과 희망보다 냉혹한 현실에 더 가까웠어요. 미술계는 직종 스펙트럼이 넓지 않을 뿐더러 급진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던가. 눈앞의 냉혹한 현실에도 그는 미술에 대한 애정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졸업 논문에서 ‘경제학에서 본 미술시장’에 관해 다뤘고, 학부 졸업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그렇다면 정 씨는 왜 ‘학예연구사’나 ‘큐레이터’가 아닌 ‘스페셜리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일까. 그 해답은 정 씨가 한때 자신과 맞지 않다고 여겼던 ‘경제학’에 있었다.

“현재 미술품 경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술 전공자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오랜 학업 기간을 따라잡을 순 없죠.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생각해보니 경제학이 바로 그 ‘무언가’더라고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많지만, 경제학과 미술을 모두 전공한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그때 마침 서울옥션의 스페셜리스트 모집 공고를 보게 됐어요. 결과는 나쁘지 않았죠.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있 으니까요.”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Seoul Aucti

▲정태희 씨는 서울옥션에서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매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옥션

인도vs중국vs한국의 '원조' 쟁탈전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음료 중 하나인 차(茶). 인류가 차를 처음 발견한 때는 기원전 2737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전해지는 신화에 의하면 '신농(神農)'이라 불리는 제왕이 100가지 풀을 맛보다가 독초를 먹고 중독됐는데, 우연히 찻잎을 먹고 해독됐다고 한다. 신농이 기원전 2700년경 인물임을 감안하면 차의 역사는 어림잡아 5,000년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차 문화를 향유하게 됐을까?

인도 공주가 혼수품으로 들여온 차 씨앗

우리나라에 차가 유입된 과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 그중 '인도전래설'은 차와 관련된 설화 중 최초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불교통사』의 기록에 따르면 가야의 시조 수로왕은 인도 아유타 출신 공주 허황옥을 신부로 맞이했다. 인도 전래설에 의하면 허황옥이 차 씨앗을 혼수품으로 가져왔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차 재배가 시작됐다고 한다.

실제 허황옥이 차 씨앗을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김해 지역에는 '장군차'의 야생 군락지가 남아 있다. 장군차는 인도 아삼 등지에서 생산되는 대엽종으로, 찻잎이 크고 짙은맛을 내는 탄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허황옥에 의해 차가 유입됐다는 '인도전래설'에 더욱 힘을 실어 준다.

『가락국기』에 따르면 가야에는 수로왕 후대 임금의 제사상에 차를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 차가 허황옥이 가져온 차인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실제 가야에 차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인도전래설'에

우리나라 차의 유래

인도전래설

수로왕과 혼인한 허황옥이 혼수품으로 차 씨앗을 가져옴

중국 도입설

당나라에 파견 간 대령이 차 씨앗을 가져옴
※ 대령 이전에도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존재

자생설

- 우리나라 안에서 독자적으로 차문화가 생겨남
- 본래 차나무는 온대지방에서 자람

근거를 보태고 있다.

당나라에서 씨앗을 품고 돌아온 사신

또 다른 유래로는 '중국도입설'이 있다. 『삼국사기』 본기에 따르면 신라 흥덕왕 3년(828년), 당나라에 파견한 사신 '대령'이 신라로 돌아올 때 차 씨앗을 들여와 지리산 상계사와 화엄사 일대에 심었다고 한다.

이 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차가 최초로 재배된 것은 대령에 의해서라고 주장한다. 차를 마시는 풍습은 선덕여왕(632년) 때부터 있었지만, 그때는 차를 직접 재배해 마신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국도입설'은 『삼국사기』에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만, 정설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지리산에 씨

앗을 심은 위치가 정확히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어서다. 아직까지도 차가 처음 재배된 곳이 어딘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미숙(한국차문화협회) 강원지부장은 "우리나라의 차 유래설 중 '중국도입설'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대령 이전에도 이미 차를 마시고 있었고 제례 등에 차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

이라며 '중국도입설'에 대해 반박했다.

원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소엽관목

차 문화가 우리나라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자생설'도 있다. 일반적으로 차나무는 고생대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 백두산·울릉도·한라산 등을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 지역은 고생대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영·호남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각지에서 야생 토종 차가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생설'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자생설'은 차의 고장 하동 출신인 차 연구자 고(故) 하상연 씨가 생전 내세운 주장에서도 그 근거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차나무의 원조국을 인도나 중국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인도와 중국이 온대지방에서 자라던 대엽종과 대엽교목종 차나무를 자국에 옮겨 심어 대량 재배한 뒤 세계로 수출했기 때문이다. 온대지방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도 차의 원종(原種) 중 하나인 소엽관목이 서식하고 있다. 인도·중국의 차 품종을 원종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차나무의 원종은 열대·아열대·온대지방을 막론하고 폭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온대지방의 원종을 가져다 재배해 규모를 확대한 인도·중국을 차의 원조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우리나라 차의 시초는 고조선 시대부터라 할 수 있다. 고조선 시대에는 제천의식을 거행할 당시 신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음료로서 '백산차'를 끓여 올렸다"고 말하며 '자생설'에 무게를 실었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가을철 은행 악취, 그 해답은 DNA?

가을이면 노란 단풍으로 거리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은행나무는 공해에 강하고 병충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전국 가로수 비율 중 30%를 차지할 만큼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은행나무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바로 열매가 내뿜는 '구린내'다. 가을 무렵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 열매는 코를 찌르는 특유의 고약한

냄새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선사한다. 거리 곳곳에 떨어진 열매를 사람들이 밟기라도 하면 거리는 순식간에 더러워진다. 통행에 불편을 겪는 일도,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거리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열매를 따려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처럼 은행나무 열매는 그야말로 가을철 골칫덩어리나 다름없다.

그런데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열매는 은행나무의 암나무에서만 열린다. 그 사실을 인지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도로변에 늘어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해 피해를 줄이려 했다. 그러나 교체 작업은 난관에 부딪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됐다. 꽃의 외형적 차이나 열매 결실 여부 등 외형적인 특징을 보고 암·수를 구별하려면, 최소 15년에서 길게는 30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무렵이 되면 이미 가로수는 훌쩍 자라 있어서 더는 옮겨 심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줄곧 성 구분 없이 무작위로 심어졌다.

그렇다고 모두가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은행나무 성 감별 DNA 분석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분자유전학의 일종인 'DNA 마커' 내 'DNA 밴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DNA 마커는 생물체 간 유전자적 차이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특정 유전자 염기 서열이다. 실험용 겔 안에 DNA 마커를 넣고 전기 자극을 가하면 분자 구조가 해체되면서 막대기 형태의 가닥으로 변형되는데, 이것이 바로 'DNA 밴드'다. 이 실험은 음(-)극 성질을 갖고 있는 DNA에 전기를 가하면 이것이 양(+)극 쪽으로 늘어나다가 결국 그 구조가 분해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겔전기영동 실험법'이라 불린다.

이 방법을 은행나무에 적용하면 암나무에서는 1개, 수나무에서는 2개의 DNA 밴드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은행나무의 암·수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분석에 필요한 DNA는 주로 나뭇잎에서 추출하므로, 어린 나무에서도 얼마든지 DNA 추출을 할 수 있다. 은행나무의 연식에 상관없이 암·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중폭된 DNA 밴드(유전자)는 흰색으로 관찰되고, 왼쪽의 숫자는 밴드의 크기를 나타낸다. 암나무에서는 1개, 수나무에서는 2개의 DNA 밴드가 나타난다. (♂: 수나무, ♀: 암나무)

나성준(국립산림과학원) 임원연구사는 "은행나무 성 감별 DNA 분석법"을 활용해 가로수를 심기 전에 수나무를 선별할 수 있게 됐다. 은행 열매로 인한 악취, 오염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암나무와 수나무를 선별해 재배함으로써 은행 열매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거언 기자
shell990824@naver.com



▲암나무에 열매가 열린 모습

· 삼 학 송 ·

‘대충 살자’와 ‘나는 유노윤호다’ 사이

‘대충 살자’ 숫자 풍선 들기 귀찮아서 머리에 긴 황정민처럼(숫자 ‘1’ 모양 풍선에 머리를 우겨넣은 배우 황정민 사진과 함께), ‘대충 살자 베토벤 높은음자리표처럼(베토벤이 성의 없이 그린 높은음자리표 그림과 함께), ‘대충 살자 귀가 있어도 관자놀이로 노래 듣는 아서처럼(만화 <내 친구 아서>의 주인공 아서가 관자놀이에 헤드폰을 착용한 장면과 함께).

최근 SNS에서는 유머러스한 이미지와 함께 ‘대충 살자 (무엇을 하는) 누구처럼과 같은 형식의 문구를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이는 한 트위터 유저로부터 시작돼 페이스북으로 전해졌고, 일명 ‘대충 살자 시리즈’로 유행했다. 대충 살자 시리즈의 유행은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 맥주회사는 대충 살자 시리즈를 패러디한 상업 광고를 내걸어 주목 받았다.

처음 ‘대충 살자’를 외친 이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대충 살자 시리즈가 내포하는 것은 단순한 유머만이 아니다. 그 안에는 학교 또는 직장에서 끝없이 ‘노오력’ 해야 하는 2030세대의 자조 섞인 목소리와 소심한 저항이 담겨 있다.

실제로 대충 살자 시리즈를 접한 일부 네티즌은 “ㅋㅋㅋ대충 살자!”, “대충 살자...시험기간인데 휴대폰만 하는 나처럼...ㅎ” 등 단순한 웃어넘기는가 하면, “요즘 이런 마음가짐도 괜찮을 거 같아. 너무 골몰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진짜 대충 좀 살아보자” 등 ‘대충 살자’는 말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물론 ‘대충 살자’고 선언하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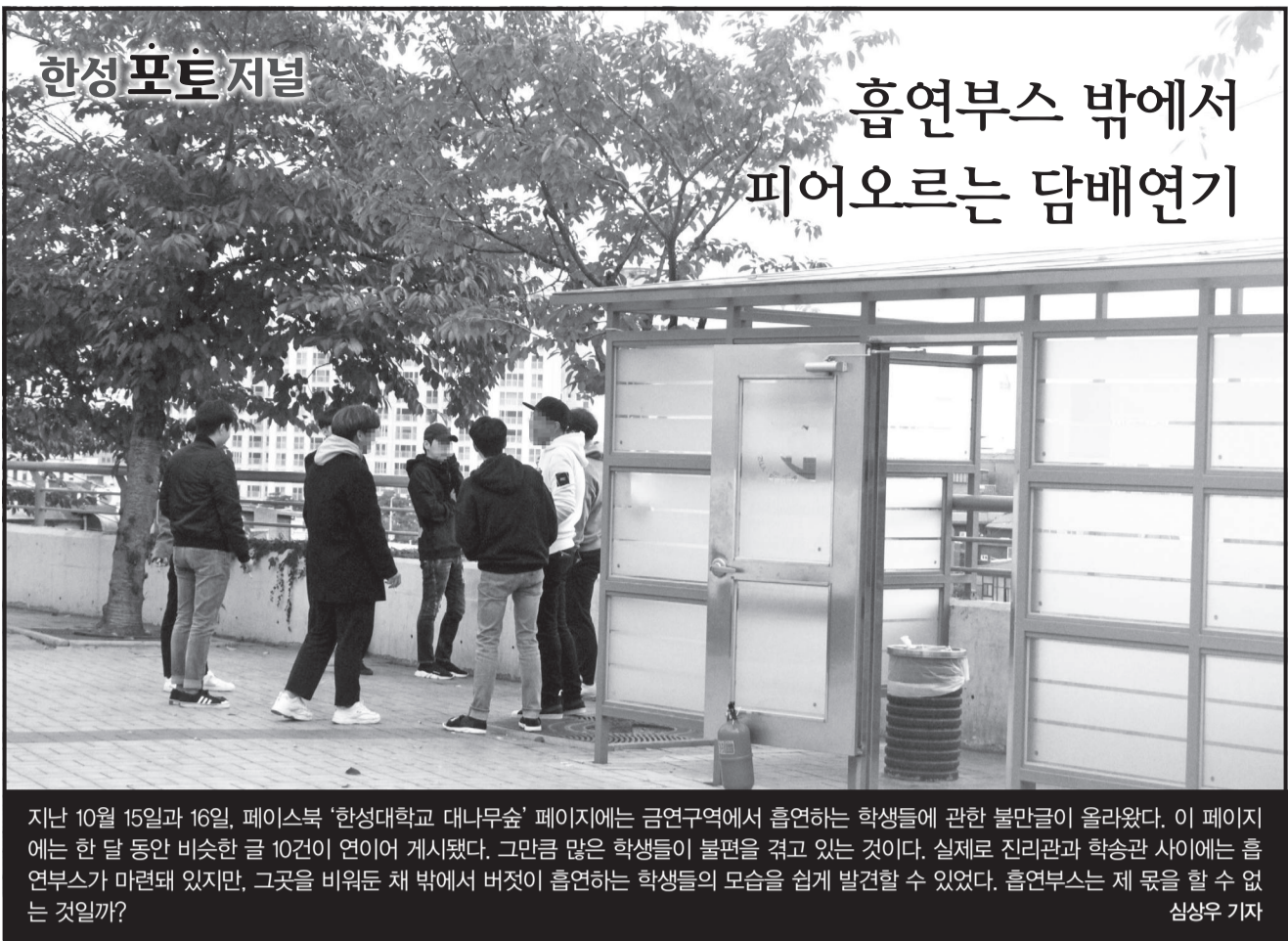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왜 ‘대충 살자’에 열광할까? 사실 그들도 잘 알고 있다. 대충 사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아마도 그들은 대충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럴 수도 없기에 ‘대충 살자’는 말로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충 살자’가 유행하던 와중에 그와 대비되는 ‘열정적으로 살자’가 급부상했다.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가 지난해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별레는 ‘대충’이라는 명언(?)을 남긴 것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열정 대세에 불을 지폈다. 이른바 ‘유노윤호식 세뇌법’이다.

SNS에서 널리 공유된 유노윤호식 세뇌법이란 나태해진 자신에게 “나는 유노윤호다. 살아있음에 매 순간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역경 따위 가볍게 뛰어 넘어주지. 나는 지치지 않는 유노윤호다”라고 스스로 주문을 외는 것이다. ‘열정 만수르’ 유노윤호에 빗의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다.

‘열정페이’에 지쳐 대충 살기를 갈망하던 사람들이 유노윤호식 세뇌법을 말하며 다시 열정을 충전하는 모습은 왠지 조금 아이러니하다. 어쩌면 ‘대충 살자’와 ‘나는 유노윤호다’ 모두,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면서 일상의 고단함을 웃음으로 승화하며 홀출 털고 일어서겠다는 반역적 표현이 아닐까.

강예림 편집국장



한성포토저널
흡연부스 밖에서 피어오르는 담배연기

지난 10월 15일과 16일, 페이스북 ‘한성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에 관한 불만글이 올라왔다. 이 페이지에는 한 달 동안 비슷한 글 10건이 연이어 게시됐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진리관과 학생관 사이에는 흡연부스가 마련돼 있지만, 그곳을 비워둔 채 밖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흡연부스는 제 몫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심상우 기자

의화정

‘혼밥’에 이어 ‘혼술’이라는 말이 흔히 들린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세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꼭 1인 가구가 아니라고 해도, 혼밥, 혼술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혼자서 술 마시는 일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내가 마시고 싶은 만큼 적당히 조절해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럿이 마시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마셨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 몸으로 느낄 때쯤이면 이미 취했다는 말이다. 그지경이면 과음하기 일쑤이다. 다른 하나는 조용히 혼자 앉아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독한 미식가>의 수준은 아니라고 해도, 오로지 나와 먹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술을

혼술과 향연(symposium)

목구멍으로 털어 넣는 것이 아니라, 입 안에서 맴도는 술의 짜릿한 맛은 혼자 마실 때 잘 느낄 수 있다. 사실 술은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더불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술 마시는 일의 진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심포지움이다. 심포지움(symposium)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논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의견을 발표하고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토론회”를 일컫는 것이지만, 이 말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에게까지 올라간다. 그리스어의 심포시온(symposium; 향연)에서 온 말인데,

심포시온은 음악이 있고 술이 있고 대화가 있는 연회를 말한다. 한 마디로 술파티라고 할 수 있는데, 방점은 ‘대화’에 찍힌다. 플라톤의 ‘향연’에서도 소피스트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에로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사랑(에로스)에 대해 주고받은 이야기다. 물론 위의 두 가지 모두 단점도 있을 것이다. 술을 마신다는 점에서 단점이 더 많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핵심이 모두 ‘대화’에 있다는 것이다. 좋은 사람들과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나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 역시 필요한 일이나가.
강호정(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교수

#낙산세컷_상처만 남긴_축제_오십보백보

김수현 기자



기자수첩

여기,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 강박 증세를 보이는 이가 있다. 그는 평소 방 청소 잘 하지 않는다. 한번 청소를 시작하면 적당히 끝낼 줄을 모르고, 방 안 구석구석을 다 헤집어 청소해야 직성이 풀리니 아예 청소를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시리즈로 연재되는 책, 영화, 드라마 등을 보는 것도 꺼린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앉은 자리에서 끝을 봐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이다. 일단 무언가를 시작하면 끝을 볼 때까지 몰고 늘어져 평소 ‘근기있다’는 말을 들곤 하는 사람, 이미 시작한 일을 완벽히 끝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필자 본인이다.

완벽의 덫에서 벗어나는 법

이러한 증상은 소위 ‘소극적 완벽주의’라 불리는 강박증의 일종이다. 강박증은 비단 필자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강박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4년 2만 3230명 ▲2015년 2만 4133명 ▲2016년 2만 547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강박증 환자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20대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26.2%를 차지했고, 30대가 그 뒤를 이어 20.9%를 기록했다. 전체 강박증 환자 두 명 중 한 명은 청년인 셈이다. 청년들이 강박증에 시달리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에는 사회·환경적인

요인도 한 몫 한다. 최근 지속되는 취업난과 경기 불황으로 많은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안고 산다. 경쟁 상대를 한 명이라도 더 제쳐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은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전쟁터와 다름없다.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가 청년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강박과 완벽으로 옥죄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숨 막히는 사회에서 강박 증상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스스로 자신의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그러한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도전하는 태도. 이것만이 청년들을 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거라 믿는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낙산에 올라

“이제 들어가요?” 분명 자취방에 배달시킨 치킨을 문 앞에 놓고 가달라고 했다. 그럼에도 안심이 되지 않아 치킨이 배달된 후 일부러 5분이 지난 후에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배달원은 어째서 우리집 승강기 앞에서 있으며, 왜 내게 그런 말을 건넌 걸까. 놀라서 치킨은 잡지도 못한 채 문을 닫아버렸다. 내가 살던 집은 5층이었다. 배달원은 승강기를 5분씩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또한, 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건넌다면 안 됐다. 나는 무서워서 다음 날이 돼야 복도에 나가 차갑게 식은 치킨을 가져와 먹을 수 있었다. 가게에 연락해 항의할까 생각도 했다.

편안하지 못한 삶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알고 있는 배달원을 신고하기에는 그의 보복이 두려웠다. 사고는 커녕 해코지를 당할 것이 분명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설 수도 없었다. 배달원은 남자였고,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배달원이 걱정하고 나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나는 어쩌할 재간 없었다. 그 당시 나는 그 배달원이 내 주변을 맴돌며 어떤 일을 벌이지는 않을까 두려워 한동안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일은 생각지도 못했다. 친구들과 놀 때도 대부분 해가 떠 있을 때 집에 들어갔다. 그마저도 친구에게 동행을 부탁했다. 그 날 이후로 배달음식은 항상 집 근처 골목에서

받았다. 그 가게에 다시는 주문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수많은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나는 결국 그 배달원을 가게에 고발하지 못했다. 내가 조심하며 겪는 불편함이 고발 후 겪는 불편함보다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다. 사실 불편함에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었는가. 불편함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편안하지 못한 삶’을 만든다는 것이다. 나는 따뜻한 치킨을 편하게 문 앞에서 받아 먹고 싶고, 친구와 늦게까지 놀고 싶다. 이런 평범한 일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호소영(영어영문 3)

제33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펜을 움직여라, 당신의 감성으로"



모집기간 | 2018년 10월 1일 ~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

참가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주 제 | 자유 (주제에 제한이 없음)

제출형식 | 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 5편 이상

제출방식 | hansungnews@gmail.com
(e-mail로만 접수 가능)

제출사항 | 응모작/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발 표 | 한성대신문 제540호
(12월 10일 발행 예정)

시상내역 | 단편소설 : 60만 원 및 상패
시 : 40만 원 및 상패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강예림 편집국장 010-8724-0441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
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당선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